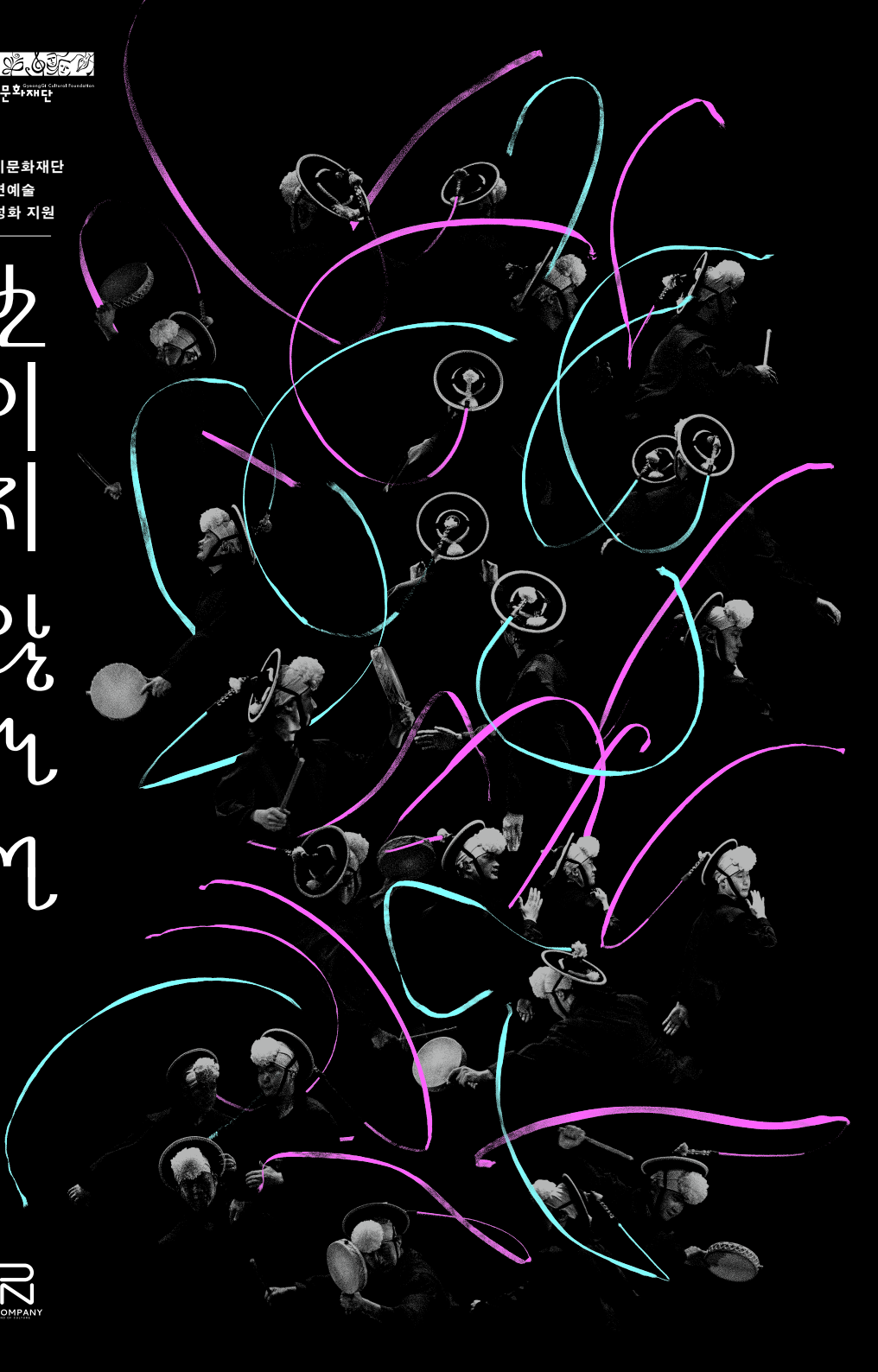
경기문화재단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경기문화재단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

보이지 않는 씨



IPN COMPANY

인사말



박세호 IPN COMPANY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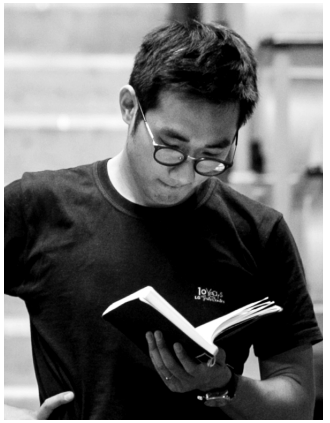
“우리가 놓지 않은 시간”

이번 공연《보이지 않는 선》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전통의 끈을 놓지 않고 묵묵히 쥐어온 연희자들의 집념,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시대와의 연결을 다룹니다. 연희자의 몸짓, 상모가 그리는 궤적, 장단의 파동, 그리고 이 공간에서 여러분과 나누는 시선까지.

무대를 채우는 모든 순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의 선으로 연결됩니다.

전통은 멈추어 있는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숨 쉬는 현재의 생명입니다. 오늘 이 무대가 과거와 현재, 연주자와 관객이 마주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따뜻하고도 뜨거운 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찾아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우리가 무대 위에 깊게 새겨낼 ‘보이지 않는 선’의 궤적을 함께 걸어주시길 청합니다.



이인보 연출

전통 풍물을 수십 년간 전공해 온 이들의 몸에는 어떤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을까요? 지금의 무대 위에서 이 에너지는 어떻게 폭발하고 섬세하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선”이라는 큰 주제로 악기와 상모에서 자유로워진 연희자들의 몸짓과 장단을 시각화한 장면들에 안무가 더해져 공연이 완성됩니다. 사물놀이 악기 하나하나에 집중하여 소리 자체의 에너지를 표현하고자 했고 전통 줄타기 형태가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 열두발의 동작이 어떻게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실험하며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전통을 이어온 몸들의 에너지가 어디까지 확장되고 지금과 이어지는 선을 만드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심주영 연출 및 안무

전통 연희가 지닌 고유한 움직임과 상모짓, 사물악기의 소리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무대 언어를 구축하고자 한다.

남성 퍼포머들의 신체를 통해 전통의 역동성과 집단의 에너지를 드러내고, 움직임과 소리의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선의 존재를 탐색한다.

선은 때로 경계가 되고, 때로 서로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며, 퍼포머들의 몸짓과 호흡에 따라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형된다.

전통과 현대, 개인과 집단, 구속과 자유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선을 움직임과 소리로 가시화하며, 그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연희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가 놓지 않은 시간
— 몸과 악기, 숨과 장단이 마침내 만나는 접점

'IPN COMPANY'는 전통 풍물을 뿌리 삼아, 연희자의 신체와 그 안에 깃든 고유의 에너지를 동시대적 예술 언어로 확장하고자 한다. 판굿의 원형적 구조와 흐름 속에서 길을 찾아온 우리는, 이번 무대를 통해 '선(線)'이라는 근원적인 화두 앞에 선다.

이번 작품이 탐구하는 '선'은 단순한 형태의 시각적 궤적이 아니다. 그것은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전통의 뿌리를 끊어내지 않고 묵묵히 쥐어온 연희자들의 치열한 집념이자, 과거와 현재, 사람과 관객, 장단과 숨결을 팽팽하게 잇는 보이지 않는 끈이다. 연희자의 동선, 상모가 그리는 곡선, 장단이 낳는 파동, 그리고 연주자와 관객이 마주하는 시선까지—무대를 채우는 모든 에너지는 하나의 선으로 얽혀 끊임없이 확장된다.

> 우리는 묻는다. 전통이 지나온 시간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닿아 있는가? 그 보이지 않는 결을 무대 위에서 어떻게 살아 숨 쉬게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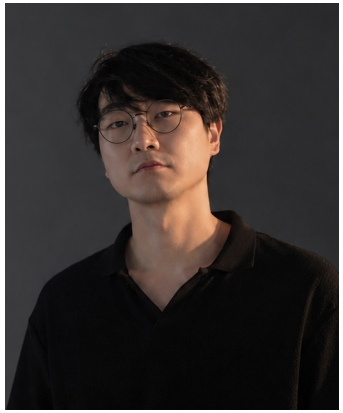
그 물음에 답을 단정 짓는 대신, 우리는 무대 위에서 그 길을 몸소 증명해 보이고자 한다. 전통은 멈추어 있는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 쉬는 현재의 흐름이다. 전통과 현대는 서로를 경계 짓지 않고 비추며, 반복과 변형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젖힌다.

그 경계의 서늘하고도 뜨거운 터전 위에서, 우리는 오늘도 멈추지 않고 또 하나의 선을 이어간다. 지금, 우리의 시간을 무대 위에 깊고 선명하게 새기며.

공연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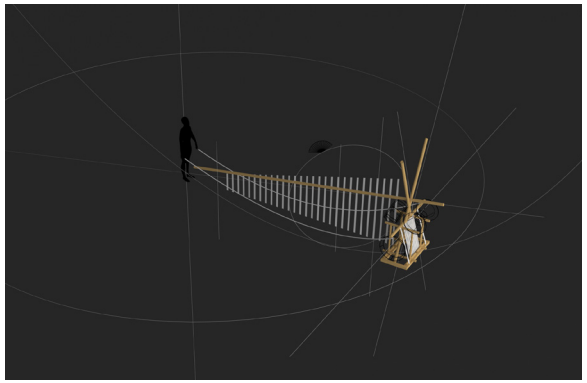
2026년 경기문화재단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 —〈보이지 않는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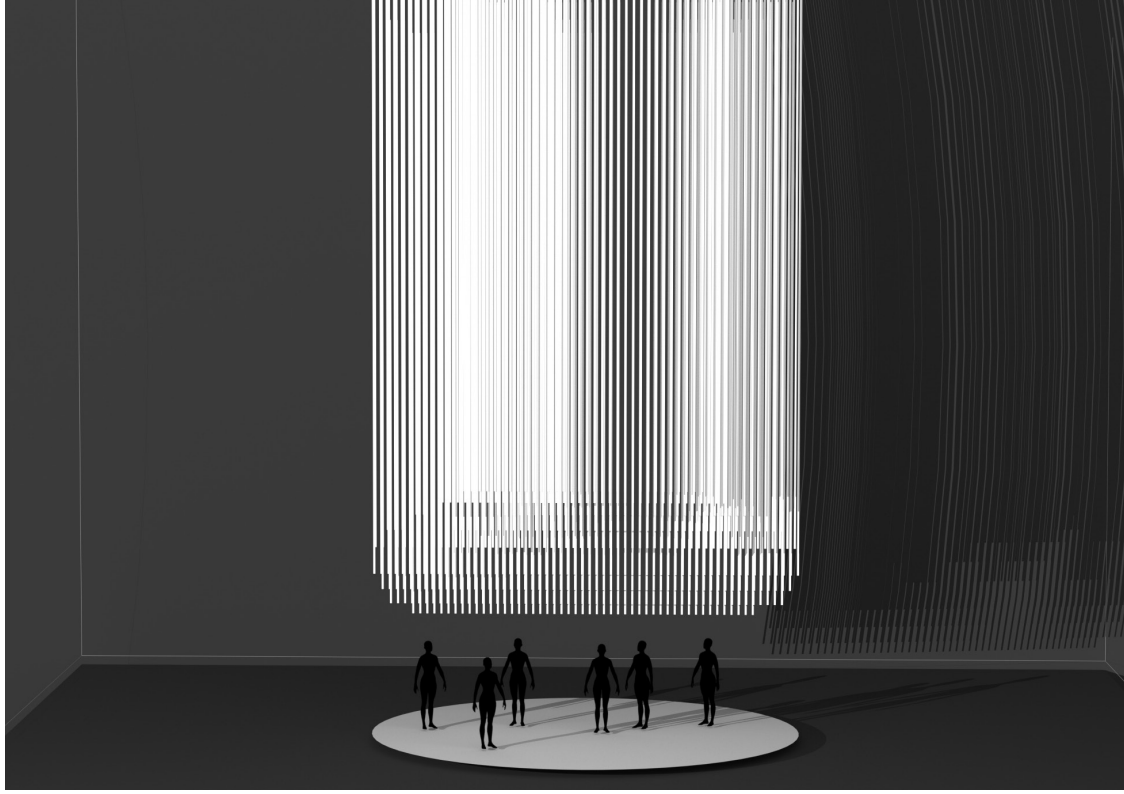
① **프롤로그**	상모가 그리는 유료한 원, 장단이 빚어내는 역동적인 파동, 연희자의 몸이 펼쳐내는 생생한 궤적까지, 눈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움직임은 곧 '선'이 된다. 나아가 관객의 시선이 머무는 곳,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 그리고 현대와 과거를 겹치는 경계선까지. 무수히 많은 보이지 않는 '선'들이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되어, 차원이 다른 연희의 순간을 만들어 낸다.
② **서곡 序曲**	첫 장단이 대지를 울린다. 연희자들이 무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며, 천장에 매달린 초리들이 바람을 타고 미세하게 흔들린다. 그 움직임은 시간을 따라 흐르는 '바람의 선'처럼 연희자의 걸음과 호흡에 반응한다. 이 행렬은 단순한 이동이 아닌, 대지를 깨우고 사람을 불러내는 의식의 시작이다. 이 순간 '시간'이 선으로 그려지고, 과거와 현재가 맞닿는 첫 번째 길이 열린다.
③ **해체 解體**	정형화된 판굿의 진법과 질서가 서서히 금이 가며 무너진다. 연희자들은 각자의 호흡대로 무대를 가로지르며 예측할 수 없는 궤적을 그려낸다. 틀을 벗어난 발걸음과 장단은 전통의 고루함을 깨부수고 온전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치열한 전위가 된다. 형식의 경계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진짜 날것의 에너지가 사방으로 뻗어 나간다.
④ **공명 共鳴**	연희자들은 시차를 두고 도미노처럼 쇠악기를 하나씩 울려 퍼뜨리며 소리의 시간차와 공간의 결을 빚어낸다. 금속 타악기가 만들어내는 진동의 층위는 하나의 울림에서 다음 울림으로 팽팽하게 번져나간다. 이 파동의 긴장 속에서 쇠와 소리, 시간과 여운이 얽힌 온전한 '파동의 선'이 드러난다.
⑤ **지평 地平**	단 한 명의 연희자가 기놀이의 거친 에너지를 짊어진 채 대나무 오브제를 끌어내어 돌리기 시작한다. 회전이 멈춘 순간 줄타기꾼은 줄의 탄성이 배제된 빠빳하고 딱딱한 대나무 위로 올라선다. 줄의 반동을 덜어낸 정적 속에서, 무대는 온전히 연희자의 신체로 증명하는 '균형의 선'으로 거듭난다.
⑥ **동력 動力**	오브제가 퇴장하며 풀려난 북들을 따라 연희자들이 대각선으로 길게 자리 잡는다. 한 배에 오른 뱃사공들처럼 노를 젓듯 펼쳐지는 북 앙상블은 사물 북 고유의 중후한 울림으로 무대를 압도한다. 묵직하게 쌓인 북소리의 파동은 사물놀이의 폭발적인 연결로 이어지며 단단한 생명력의 선을 완성한다.
⑦ **유형 流形**	연희자는 풀리지 않은 열두발상모의 초리를 요요처럼 손에 쥔 채 선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조율한다. 손 끝에 움츠러들어 있던 긴 초리는 서서히 풀어지며 허공에 거대한 원형의 궤적을 그려낸다. 온몸으로 확장된 초리의 궤적은 무대 전체를 유기적으로 휘감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형의 선'을 완성한다.
⑧ **궤적 軌跡**	전통 진법의 원형 속에서 새로운 시선과 몸짓으로 예측 불가능한 선들을 그려낸다. 견고한 진법과 집단적 에너지가 폭발한 뒤, 연희자들은 오직 '행위'로 남는다. 미세한 움직임이 다음으로 번지는 유기적인 흐름 속에서, '선'은 연결과 소통, 변화의 미학으로 확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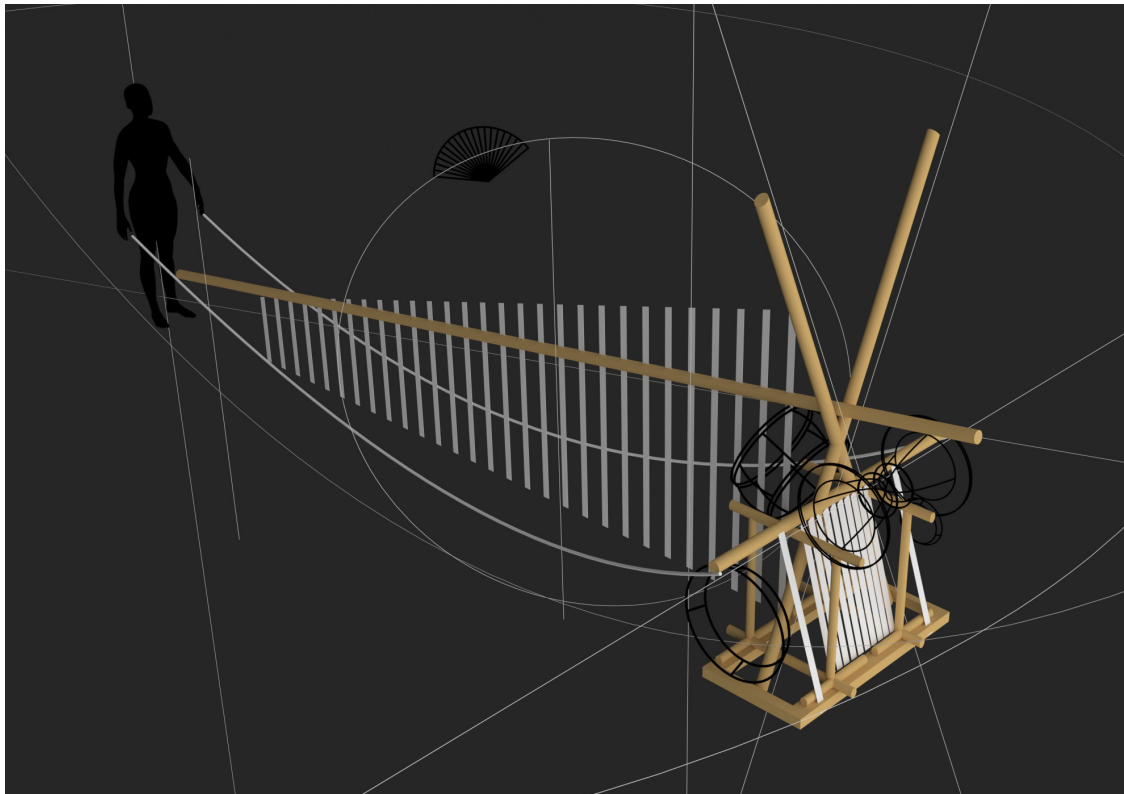


이휘순 무대 디자인

이번 작업은 전통 연희에 내재된 선과 곡선, 회전과 확장, 신체와 오브제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적 언어로 재구성하는 시도이다. 연희에서 가장 인상적인 시각적 요소는 신체가 만들어내는 힘 있는 몸짓과 그 움직임을 따라 공간에 그려지는 곡선의 조화(조형미)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각적 특징을 바탕으로 오브제에서는 회전 운동에서 발생하는 원심력과 확장되는 움직임에 주목하였다. 회전하는 힘이 외부로 뻗어 나가며 만들어내는 형태와 궤적을 극대화하고, 연희자의 신체가 오브제를 직접 작동시키는 방식을 통해 움직임 자체가 하나의 시각적 표현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전통 연희가 지닌 강한 에너지와 날카로운 조형적 특성이 시각적으로 드러나기를 의도하였다.







무대 디자인

2026년 경기문화재단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 — 〈보이지 않는 선〉

출연진



박세호



최성우



유영훈



이용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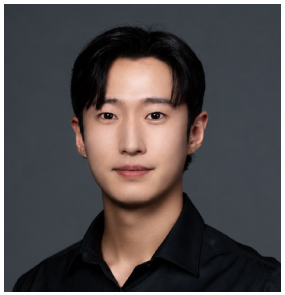
강병식



정인구



고범철



서호석

2026년 경기문화재단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 — 〈보이지 않는 선〉











연출진 및 제작진

연출 **이인보**
연출 및 안무 **심주영**
기획 **박세호**
작곡 **김시율**
무대디자인 **이휘순**
의상디자인 **CHU DA(이현정)**
조명디자인 **조철민**
음향감독 **박경수**
그래픽디자인 **LIFT-OFF**
무대감독 **배욱진**
주최 **경기문화재단**
주관 **IPN COMPANY · 경기문화재단**
지원 **경기문화재단**

11月26日
19:30
운정행복센터 대극장



이 작품(공연)은 〈2026년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에 선정되어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